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

- 복음으로 여는 빌립보서 -

시편28:7, 빌립보서4:4

정윤돈 목사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가운데 오직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는 신분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인간이 어리석어 불신앙하여 사탄에게 속아 죄를 짓고 이 땅에 떨어져 오만가지 고통 속에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여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모든 성도들이 강단메시지의 제자가 되어서, 또 세계복음화를 위한 주역이 되게 하옵시며, 제 1, 2, 3 RUTC와 237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람들 중에는 기쁨 없이 고민과 염려와 걱정 속에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많이 웃고 다닌다고 기쁜 것은 아니다. 인상을 쓰고 다닌다고 기쁨이 없는 것도 아니다. 참복음과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 때 아무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염려거리와 근심거리를 기록해보기를 바란다. 또 정말로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적어보기를 바란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하나님 자녀인 나에게 이것이 진정으로 이것이 문제가 됩니까?’ 질문하며 기도해보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말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할 것이다. 원하는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참으로 기쁘고 행복한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대통령이 되고 재벌이 되면 기쁘고 행복할까? 참된 기쁨과 참된 행복은 무엇인가? 오늘은 빌립보서를 통하여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비밀을 발견하기를 축원드리겠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편지이다. 그러나 ‘기뻐하라’ 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다. 지금 우리가 있는 그 현장에서 그리스도로 결론내고 행복해야 한다.

1. 첫 번째로 빌립보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다.

(1) 빌립보교회는 성령인도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전도계획과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셨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바울은 밤에 환상을 보고 드로아에서 마케도냐로 가게 된다. 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인정하였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6장 1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케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우리는 바울팀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을 보면서 성경적인 전도캠프의 모델을 발견할 수 있다. 전도캠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는 내 동기와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인도 받는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의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현장에 충성된 자, 갈급한 자, 사명자와의 만남을 주신다.

(2) 사명자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이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케도냐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인 빌립보에 가게 되었다. 이어서 13절에서 14절을 보면, 빌립보에 도착하여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강가에 나갔는데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된다. 사도행전 16장 14절을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루디아는 예비된 사명자였다.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면 그녀는 당장에 바울팀을 강권하여 자기의 집에 유하라고 권하였다. 루디아의 집은 미션홈이 되었다. 그리고 빌립보지역을 복음화하는 지교회의 역할을 하였다.

(3) 점치는 여종인 갈급한 자와의 만남을 주셨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점치는 귀신들린 여종의 사건으로 인해 감옥에 갇히게 된다. 점치는 여종의 주인이 있었는데, 여종 안에 귀신이 나가니까 점을 칠 수가 없어서 소득이 끊긴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고발하여 감옥에 갇히게 한다.

(4) 그 감옥에서 간수를 만나게 된다. 그 간수는 충성된 자였다.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의 간수였다. 이 간수는 옥에 갇혔을 때도 기쁘게 찬양을 하고, 또 옥문이 열렸음에도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팀을 보고 마음이 열린 것이다. 그래서 바울팀을 집으로 초청하게 되고 온 집이 예수를 믿었다. 이 간수와 바울이 나누었던 질문과 대답은 아주 유명한 말씀이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2절이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빌립보교회는 이렇게 모델적인 전도캠프를 통하여 설립 되어진 교회였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속에서 세워진 빌립보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 참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이다.

2. 두 번째로, 빌립보교회의 성도들과 우리들이 기쁨을 빼앗기는 이유들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1) 빌립보교회가 기쁨을 빼앗긴 이유는 원니스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2절에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라고 말씀하였다. 그러면서 두 사명자에게는 이름을 거명하면서까지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하고 있다.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기록하고 있다. 교회 안에서 갈등이 있으면 기쁨을 잃게 된다. 가정도 직장도 마찬가지이다.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틀리고 부족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맞춰주면 된다.

(2)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했을 때 기쁨을 빼앗기게 된다. 빌립보교회 성도들 중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보겠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 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들 중에는 복음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닮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가 교회 안에서 갈등을 일으켰던 이유 또한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고, 겸손히 섬기셨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세상의 지식과 성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빼앗기게 된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을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고백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기쁨과 성공에 대한 기준, 수준, 표준을 그리스도로 바꾸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을 보겠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인 줄을 믿기를 바란다.

3. 세 번째로 참된 영적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에 대해 빌립보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다.

(1)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6절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2) 선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을 선택할 때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빌립보서 1장 10절에 보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것은 복음, 오직복음 정도가 아니라 완전복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선과 지혜로 악을 이겼을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에스더가 그랬다. 하나님이 주신 선과 지혜로 악을 이겨야 한다. 우리의 싸움을 육신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는 다 양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보면 이미 이겼다. 바보같이 당한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

(3)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알 때 어떠한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참된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겠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의 천국배경은 하늘나라이다. 이 천국보좌의 배경이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만약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납치되면 대한민국 정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군대도 파송할 것이다. 그 군대가 영적으로 봤을 때 천군천사이다. 천국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천군천사를 파송하여 나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영원히 지켜주실 것이다. 이 확신이 들 때부터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을 수 있다.

(4) 성경말씀을 절대언약으로 붙잡을 때 기쁨을 지킬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을 영혼에 새기기를 바란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이 말씀을 암송하면서 확실히 붙잡기를 바란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는 '내 형제들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을 때 우리는 사탄에게 속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5)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는 때 참된 기쁨을 지속할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다.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럴 때 온전해질 수 있다.

(6) 봉사와 구제와 헌금을 할 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빌립보교회회는 목회자와 다른 교회들에게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의 역할을 했던 대표적인 교회였다. 그 기쁨과 행복을 알고 있는 교회였다. 빌립보서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보겠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하니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우리들이 목회자들과 후대, 전도, 선교, 교회를 위하여 헌금한다면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실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단에서는 1년에 약 9억 이상의 OMC장학금을 램넛트들에게 주고 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OMC장학금을 받지 않은 램넛트들에게 참사랑교회 장학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그리고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에게 입학 축하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참사랑RUTC를 위해 성도들이 헌금을 지속하고 있다. 이 참사랑RUTC 헌금은 서로사랑법인과 함께 영어어린이집, 노인요양원, 가족복지센터, 교육, 상담, 치유센터,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을 설립하는데 사용되어질 예정이다.

결론으로, 빌립보서를 통하여 붙잡을 미션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한다.

1. Notime 노타임이다. 우리는 한 순간도 기쁨을 빼앗기지 않을 정도로 그리스도로 결론을 내야겠다.
2. Nowhere 노웨어이다. 어떤 장소에서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복음적인 체질이 되어야겠다.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찬송하였다. 요셉은 노예생활을 하면서도 감사드리며 승리하였다.
3. Nobody, 노바디이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는 Everybody 즉, 237나라와 모든 족속,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하겠다. 구원을 얻게 하고 누리도록 해주어야 한다.
4. Noway, 노웨이이다. 이 세상에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어떤 길도 없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길과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있다.

끝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다. 단 한순간도 사탄과 세상에게 예수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드리겠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빌립보서 말씀과 바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복음과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게 하시고, 흑암이 꺾이고 참된 행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이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현장의 빛과 소금과 향기가 되어서 흑암 가득한 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237 나라까지 살릴 수 있는 응답이 후대들에게 지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